

봉침 효과 과학적으로 인정 “봉독 염증억제 메커니즘 규명”



KBS 뉴스 봉독효과 방영

민간요법으로 치부되던 봉침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봉독이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자생한방병원 관절 척추센터 장형석 원장팀과 경희대 배현수(한의대)·민병일(의대) 교수팀은 봉독의 염증 유전자 억제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논문(원제: Micro array analysi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in response to treatment with bee venom in lipopolysaccharide activated RAW 264.7 cells)을 이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봉독의 염증 억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연구팀은 지난 2005년에도 '봉독이 염증

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 한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많은 연구팀에서 봉침의 염증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나 이번처럼 봉독의 효과가 유전자 수준에서 밝혀진 적은 없었다.

장형석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험결과 봉독을 염증세포에 처리하고 나서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봉독이 세포 내 염증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희대 배현수 교수는 "봉독 투여로 염증 발현이 억제된 유전자들의 대규모 리스트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봉독을 이용해 염증성 관절염 치료제나 각종 통증 질환 치료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